

노사상생 실종...저임금 자동차 조립공장 전략 위기

노동계 협약 파기 선언...기रो에 선 '광주형 일자리'

대한민국 첫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동계의 철수 선언으로, '저임금 자동차 조립공장'으로 전략할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이용섭 광주 시장이 직접 나서 노동계의 요구안 중 노동이사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까지 전달했지만, 노동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노총 "보은인사·정치놀음 전략"

노시장 투자협약서 공개 등

6개 항목 수용 약속...참여 호소

광주분부는 또 광주시가 주장한 1만 2000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경기도와 충청도, 경상도에서 생산하는 차량 부품이 광주로 들어오게 된다. 결국 타 지역의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지만, 광주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현대차와의 재협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광주에는 대기업(현대차)이 400여 억원을 투자하지만 부산, 울산, 구미에는 수천억대 투자가 줄을 잇고 있다"면서 "상생형 일자리 성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세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윤중해 의장은 "노사상생형 일자리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사측인 현대차와는 단 한차례도 대화를 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노사상

생형 사업이냐"면서 "광주형 일자리사업 참여 중단과 협약파기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앞서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에서 "한국노총 협약 파기 예고에 따른 호소문"을 발표하고 "투자협약 내용에 본질적으로 위배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노동계에서 협약 파기 이유로 내건 여러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한다"며 동참을 거듭 호소했다.

이 시장은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원하청 상생 방안, 노사 상생, 사회통합 일자리 협의회 구성, 지난해 1월 31일 투자협약서 공개 등 6개 항목의 노동계 요구 사항과 시의 입장을 설명한 뒤 사회통합 일자리 협의회 구성은 물론 투자협약서 공개 요구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다만 노사상생 방안과 관련해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노동이사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됐지만 이젠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로, 지역 노동계와 함께 반드시 성공시켜겠다"면서 "지역 노동계도 온 국민의 간절



2일 광주시장 앞 광장에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광주형 일자리 불참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한 염원과 광주시민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는 내년 9월 완성차

생산을 목표로 빛그린 산단 60만4000㎡(연면적 10만9000㎡) 부지에 연간 경형 SUV 10만대 생산 공장을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1대 주주는 484억원(21%)을 투자한 (재)광주그린카진흥원(광주시)이며, 2대주주는 437억원(19%)을 출자한 현대차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민생당 소속 21대 총선 후보자와 당원들이 2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출정식을 가졌다. 광주지역 후보들이 분향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의당 광주시당이 2일 오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정식을 갖고 총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약수 대신 손인사·목례...마스크 쓰고 2m 간격 유세전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 날

울동·로고송 사용 자제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 표심잡기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여야 각 당이 경쟁을 시작했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울동과 로고송 사용 등을 최대한 자제했고, 야당 일부 후보들은 신세 접촉을 줄이면서도 유세 활동에 열을 올렸다. 또 각 후보들은 SNS,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전에 몰두했다.

이날 오전 광주 서구를 지역구 후보들은 이른 아침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교

차로에서 출근길 인사에 나섰다. 민주당 양향자 후보는 마재사거리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커다란 피켓을 목에 걸고 홀로 서서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민생당 천정배 후보는 풍곡사거리에서 홀로 유세 차량에 올라 인사를 건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의당 유종천 후보는 풍암저수지 인근 교차로에서 선거운동원과 함께 인사를 하며 눈도장을 찍었다.

또 민주당 조오섭 후보와 무소속 김경진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북구갑에서도 일찍부터 열린 선거전이 펼쳐졌다. 조오섭 후보는 직접 마이크를 드는 대신에 유세 차량과 선거운동원을 이용한 거리 인사·유세전을 펼쳤다. 김경진 후보는 로고송 음악을 틀거나 울동을 하는 것을 자제

했고 운동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며 홍보전을 했다.

전남지역에서도 차분한 선거 운동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원일, 민생당 박지원, 정의당 윤소하 후보의 경쟁에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목포에서도 선거운동이 진행됐다.

목포수협 위판장, 목포역에서 차례로 출근 인사를 한 김원일 후보는 유세 차량은 그대로 도로변에 세워놓고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운동원들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박지원 후보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목포 태원역 배차실에서 버스 기사들을 만났고, 이어 현대상호공업점 앞에서 근로자들에게 약속 대신 손 인사를 했다. 인공폭포 사거리에서 일정을 시작한 윤소하 후보는 동부시장과 목포역에

서 운동원들과 집중 유세를 펼쳤다.

순천·광양·구례·곡성갑에 나선 후보들도 지역 곳곳을 누비며 표밭을 다졌다. 민주당 소병철 후보는 순천만국가정원 방문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고, 미래통합당 천하람 후보는 순천시청 앞에서 출근 인사를 한 뒤 순천아랫장에 들러 상인들을 만났다. 민생당 기도서 후보는 자정부터 순천역에서 유권자들을 만났고 연합동 일대를 돌며 유세전을 펼쳤다. 정의당 강병택 후보, 민중당 김선동 후보는 아래장에서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만나 애로 사항을 듣고 지지를 호소했다. 무소속 노관규 후보는 유세 차량을 타고 순천 곳곳을 돌며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부탁했다. /오광택 기자 kroh@kwangju.co.kr

"이번 총선서 양당 대결 정치 끝장내야"

손학규 민생당 선대위원장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목표"

손학규(사진) 민생당 상임선거대책 위원장은 2일 "이번 총선을 통해 거대 양당 대결로 인한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끝내고 다당제 연합정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광주에서 시작되는 호남 민심이 국내 정치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호남 유권자들에게 제3지대 정당인 민생당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광주는 지난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극한 정치를 끝내고자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제3당을 선택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거대 양당의 정치 구도를 호남 유권자들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도 진보와 보수 수가 아닌 중도 정치를 한번 해보아야 한다는 여론은 많은데, 선거에서 표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서 "중도 정당이 살아날 수 있는 정치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위원장은 이번 총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전국적으로 지역구 10석, 비



례대표 10석 등 총 20석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목표다"면서 "광주와 전남지역 11명의 현역의원 중 1~2명 정도는 생존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다. 그러면서 "광주와 전남지역 민생당 현역 의원들 가운데 경력이 뛰어난 인물들이 상당수"라면서 "민주당 바람이 세다고는 하지만, 현역 의원들의 인물이 유권자의 표심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손 위원장은 또 "이번 총선에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폐해를 없앨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대했는데, 거대 양당이 의회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면서 "제3지대 정당인 민생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광주시민들이 굳건히 지지해달라"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가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